인생의 직삼각형을 그리는 순서

(열왕기상 9:1~28)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직삼각형을 그리는 순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인생의 직삼각형을 그리는 순서'

한 부인이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았던 긴 기간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전에 남편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어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에게 받

은 상처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해줍니다. 한 달 동안 증오의 감정을 숨기고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는데, 단 남편이 부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때에 관계를 매몰차게 단절한다면 남편은 최대한의 상처를 입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 순간을 상상하며 의사의 말대로 정성을 다해 준행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부인이 다시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에 의사가 이혼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혼은커녕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근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행동이 마음을 규정하는 원리입니다. 전래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맞았지만 행동이 마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부인이 복음신앙이 올바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목사님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기독교에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는 어쨌든 남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는 기독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남편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문제시 하는데 사랑해도 담고 있는 것이고 증오해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는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관계의 자리를 바꾸게 합니다. 부인의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가 아니라 마음이 옮겨가야 하는데 인생은 직삼각형의 형태로 그려지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가 지구의 평면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나 대상이나 사람들이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각형을 그리는 순서가 인생의 질에 있어서 생사의 문제,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가족과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각의 꼭짓점이 연결되면서 믿는 자의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믿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에게 있어서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인생이 진행되는데 이 삼각형을 그릴 때의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함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7년간 성전건축을 했고 이어서 13년의 세월에 걸쳐 왕궁건축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건축 사업이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었는데 그 중간의 교역로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솔로몬의 막강한 국력으로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읍이 도시화되고 이방문화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막대한 부가 나라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육로 외에도 두로의 히람 왕은 지중해가 삶의 터전인데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홍해 쪽으로 무역선단을 띄워서 해상무역도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됨과 더불어 가나안 지역에 잔류하던 이방인들을 모아서 노예화시킴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얻게 되어 건축 사업이 활발해집니다. 이렇듯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왕이 정신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나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네게서 난 아들들로 왕위를 잇게 하신다고 하는데 메시아 예언까지 이어지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 6~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전 자체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솔로몬은 모든 바쁜 일 가운데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을 성전 되게 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하게'라는 말씀은 완전무결한 마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본래 존재하게 된 이유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마음의 존재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인격체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성의 근원이고 그 인격성 안에 빈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구성요소들을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을 담는 바다와 물두멍이 있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내 마음을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음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즉 에덴동산을 회복하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온전하고 무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 뒤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직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무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바르고 곧은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민인 우리의 인생은 직삼각형을 그리며 진행됩니다. 서두에 예를 든 부인의 경우에서처럼 내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로 마음이 갔는데 남편에게로 간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직각삼각형의 수직인 변처럼 하나님은 바로 위에 계십니다.
삼각형의 밑변은 세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먼저 그으면서 옆으로 빠져 나갑니다. 남편에게로 갔더니 불행합니다. 남편과의 문제를 위해서 빗변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부인의 마음이 한 번 꺾여서 갑니다.
지구 수평면 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과제가 있을 때에 마음이 옆으로 갑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라는 밑변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수직선상의 내 위에 계십니다. 사업이라는 밑변을 그려놓고 하나님께는 빗변으로 가서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이 땅의 내 옆에 있는 것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면 선이 직선이 되지 않고 꺾여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다 미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9절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옆의 지구의 평면상에 있는 어떤 것도 수직선상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지점에서 첫 번째 직선으로 도달하는 점이 바로 신입니다. 그 대상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던 부인에게 기독교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미신을 신봉하는 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의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마음으로부터 직선으로 도달하는 대상이 남편이어야 하는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직선으로 도달할 첫 번째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는 것인데 이 '바르게'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면 온전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지시는 뜻이 아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말씀에 기초한 비밀을 이야기하자면 법도와 율례는 우리가 행동함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되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번제단의 역할은 내 마음으로부터 금을 그어서 직선으로 도달하는 곳이 땅이 아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듯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오기 위해서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평면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끄는 다른 직선의 대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지구의 평면상에서 내 마음이 직선으로 도달해서 만나는 대상들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남편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사업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돈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게 신입니다. 신은 평면이든 수직이든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직선으로 도달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남편에게 먼저 도착하고, 빗변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선이 꺾입니다. 밑변의 선과 빗변의 선이 꺾이므로 마음의 움직임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수직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밑변에서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밑변은 내가 긋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마음을 완전무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제쳐놓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직삼각형의 순서를 바르게 그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밑변에서 내 마음과 수직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에 대해 죽는 것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이고 성전의 의미를 흡수해버린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밑변을 다 잘라내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수직 변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밑변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발휘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인생은 직삼각형 그리기입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번영의 최 정점을 이루겠지만, 이 번영에 대해 옆에 있는 평면상에서 밑변을 먼저 긋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마음의 밑변을 먼저 긋게 하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수직 변을 먼저 그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 가시겠다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밑변을 긋게 하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수직 변을 먼저 그으시고 수직 변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밑변들이 그어져 갈수 있도록 하루를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내가 있는 지점에서 내 마음의 밑변을 긋도록 잡아 끌 것입니다. 그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수직선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로 온전히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내 모든 밑변은 하나님께서 그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